

14일 Market Index			
코스피	4723.10	코스닥	942.18
	(+30.46)		(-6.80)
금리 (국고채 3년)	2.996	환율 (원·달러)	1475.05
	(-0.007)		(+1.35)



“K-스틸법, ‘수소값 인하’ 현장 목소리 담아야”

철강업계, 탄소중립 전환에
업계 부담 그대로 현실 지적
관세 등 통상대응 강화 촉구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특별법)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에서 수소·전력 비용과 설비 투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자원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시계가 빨라지는데 비해 철강업계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 지원과 에너지 대책, 시장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하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 전환의 비용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수소 가격이 꼽히는데 업계는 관련 비용의 전향적 지원책을 원하고 있다. 국제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트랜지션 아시아는 수소환원체질이 기존 고로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소가격이 1kg당 1달러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철강업계는 2000원/kg대를 경제성 마지노선으로 보지만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청정수소 목표가는 2500원/kg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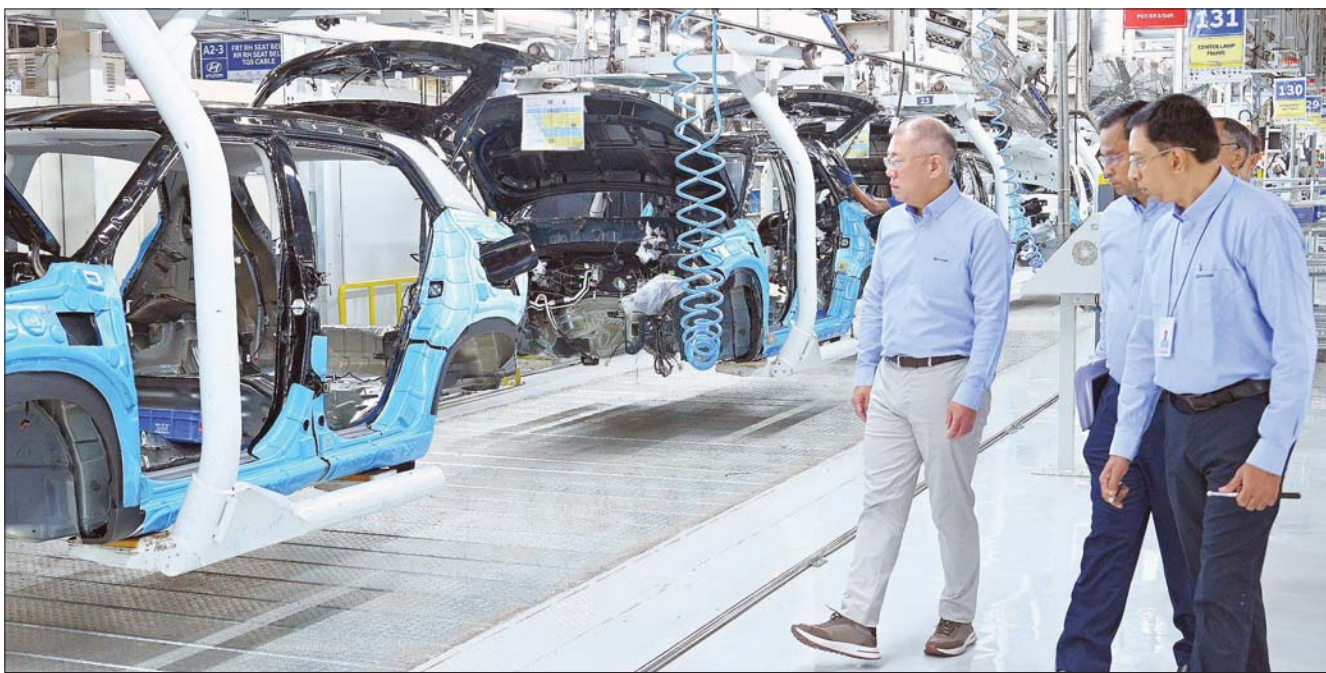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철강산업 고도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생존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 등 실질적 비용 지원이 체감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설비 투자와 에너지 비용 부담도 산업체질 전환에 있어 병목으로 지적된다. 포스코 하이렉스(HyREX) 데모플랜트(총 8146억원)의 국비 지원은 3088억원(38%)에 그치고, 대부분 R&D 예산으로 편성돼 설비 투자·운영비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수소환원 제철은 전기로 기반 전환시 전력소모가 기존 고로 대비 60% 이상 증가하며 자가발전이 어려워 외부 전력 의존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료 기반 확충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 2월 신년사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고급 스크랩 확보를 위한 가공전문기업 지정제, 선별·정제 설비 투자 지원, 폐배터리 혼입 차단 관리 강화, AI 선별 기술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장 질서 보완 요구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KS 인증 기준 강화와 비품질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와 유관기관 협력 장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혜은 인턴기자 dhahledhale@metroseoul.co.kr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현지 시간) 인도 전역의 사업장을 찾았다. 사진은 정 회장이 현대차 인도 첸나이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새해벽두 中·美·인도 ‘광폭 경영’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모빌리티·수소·AI·로보틱스 등
현재와 미래 사업영역 직접확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새해벽두부터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중국·미국·인도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회장은 이같은 현장 경영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격전지인 미국에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과거 점유율 확보와 미래 친환경차 분야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침체 속에서도 핵심 신흥시

장으로 급부상한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했으며 6일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6을 찾아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등 업계 리더들과 만나 AI, 로보틱스 등 미래 분야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11일에는 세계 인구 1위의 거대 시장 인도를 찾아 현지 생산 시설 등을 둘러보고 현지 공략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회장의 새해 강행군은 거대 경제

권이며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개국에서 모빌리티, 수소, AI, 로보틱스 등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직접 확인하고, 고객 중심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현대차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인도 시장 공략에 특히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인도에 있는 현대차그룹 공장 3곳을 방문한 정 회장은 “현대차는 30년간 인도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인도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다른 30년을 내다보는 호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주)한화, 테크·라이프 ‘신설’… 김동선 사업군 분리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존속
존속법인 76.3%, 신설 23.7% 비율

(주)한화가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과 테크·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에 나선다.

(주)한화 이사회는 14일 오전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이후 방산·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계열사는 존속법인에 남고, 한화비전·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부문과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부문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에 편입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

로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다.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에 따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는다. 인적분할은 6월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한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그동안 기업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 성장 전략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사업과 시장 대응 속도와 민첩성이 중요한 기계·서비스 사업이 하나의 법인에 묶이면서 전략방향과 속도의 불일치, 자본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해왔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그룹 전

반의 지배구조 정비와 승계 구도를 함께 정리하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은 테크·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을 이끌게 되며 담당 사업영역이 명확해졌다. 방산·조선·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 축은 김동관 부회장 중심의 지배·경영 체제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인적분할은 단순한 조직 재편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승계 구도와 지배구조를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승계 관련 불확실성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작년 고용률 역대최고
청년층은 3년째 하락
‘쉬었음 인구’도 늘어

지난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면서 15~29세 고용률이 3년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또 이들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42만800명으로 전년대비 70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대의 연간 취업자수는 2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3년째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5년 한 해 전체 취업자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2021년 36만9000명, 2022년 81만6000명, 2023년 32만7000명을 기록한 뒤 2024년(15만900명)과 2025년(19만3000명)에는 2년 연속 10만명대를 나타냈다.

데이터처, 12월·연간 고용동향
전체 취업자수 전년대비 19만명 ↑
15~29세 고용률 1.1%p 떨어져
건설·제조 취업자 수 감소폭 커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2013년, 제조업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15~29세 고용률이 전년대비 1.1%포인트(p) 떨어진 45.0%를 기록했다. 2021년(4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에서 2023년 46.5%, 2024년 46.1%, 2025년 45.0%로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연간 실업자 수는 830만명으로 전년대비 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8만8000명(3.6%) 증가했다.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42만8000명으로 7000명(1.6%) 늘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고,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7000명(2.4%)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정부는 청년·지역 등 고용 취약부문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구직·쉬었음 청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압수수색…前보좌진 조사도
▲2차 소환 앞둔 김경…점점 짙어지는 증거인멸
정황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與 의원 재보궐 전략공천? 정청래, 이재명·이낙연의 길 중 택해야”
▲“원조 친홍” 윤한홍 입건에 홍준표 “살기 위한 선택, 이해한다”

▲검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정부안에 뒤통수 맞은 모욕감”
▲국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서 “한동훈 제명” 비판…“지도부 바로잡아야”